

여가와 휴식

박기순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필요한 일과 필요하지 않은 일

플라톤이 남긴 저작들은 대부분 마치 희곡처럼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대화편”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글을 썼을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에게 대화는 철학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철학적 방법으로 알려진 ‘변증술^{dialectics}’이 ‘대화하다^{dialegethai}’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변증술은 말^{logos}을 할 줄 아는 두 사람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정해 가면서 중요한 질문,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지 혹은 사랑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일컫는다. 플라톤의 각 대화편에는 고유한 대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논하는 등장인물들이 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항상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의 적대자들이었던 소피스트들이나 깨우침을 받아야 할 젊은이들을 대화 상대자로 등장시켰다. 대화편의 제목은 보통 대화 주제나 대화 상대자를 따라 지었다.

『파이드로스』는 이 대화편 가운데 하나다. 파이드로스라는 대화 상대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이 대화편은 사랑과 연설술을 논의 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대화편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작 이 주제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이 두 주제에 관한 대화들 사이에 마치 간막극처럼 끼워져 있는 매미 신화와 관련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곧 철학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파이드로스에게 설명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대화의 도입부에서 파이드로스가 뤼시아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를 만나 뤼시아스가 사랑에 대해 아주 아름다운 말을 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을 잘했다던 뤼시아스의 이야기는 결국 소크라테스에 의해 반박되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파이드로스에게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안에 파이드로스는 이렇게 답한다. “필요가 있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막말로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누군들 뭐 하러 살겠어요?”(플라톤, 『파이드로스』, 258e, 김주일 옮김, 이

제이복스, 103쪽.) 소크라테스는 필요한가를 물었고, 파이드로스는 긍정으로 답한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되고 있는 필요성, 즉 대화의 필요성은 어떤 종류의 필요성일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때의 그 필요성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그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죽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다. 이 대화의 필요성은 그러한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필요 이상의 것이고, 혹은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사치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에게는 필요한 일인가? 심지어 파이드로스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살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삶에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생존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의 삶, 즉 생명의 단순한 보존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에게만 허락되는 좀 더 고결한 삶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파이드로스가 말하고 있듯이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필연성에 얽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우리는 예측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그러한 필연성에 얽매 있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생존의 필연성에 묶여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다.

반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좀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타인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일, 이것이 그러한 일에 속한다. 그래서 파이드로스는 삶은 오직 이것을 할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매미 신화의 교훈

파이드로스의 긍정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일단 그럴 여유 시간은 있는 듯하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으레 그러듯 매미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노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를 굽어보기도 하는 것 같군. 그리하여 그들이 한낮의 대다수 사람들처럼 우리 둘 역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졸면서 생각의 게으름으로 자기들의 주문에 우리 자신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어린 양처럼 자기들의 작은 쉼터에 와서 한낮에 낮잠을 자는 노예들이라 생각해서 비웃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 가며 주문에 걸리지 않은 채로 세이렌들의 곁을 향해 지나가듯이 그들 곁을 지나가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감탄하여 그들이 인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신들에게서 허락받은 영예의 상을 줄지도 모르네. (같은 책, 258e-259a, 103-04쪽)

우선 매미들 이야기부터 해 보자. 매미들은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개미와 베짚이’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본래는 ‘매미와 개미들’인 이 이솝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근면함과 놀다가 막상 겨울이 돼서 개미에게 구걸해야 했던 매미의 게으름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미는 아주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무사^{Muse} 여신들이 노래를 할 때, 그것에 취해 식음을 전폐하고 듣다가 자신이 죽은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매미가 되었는데, 이 매미들은 먹고 마시지도 않고 평생 노래만 부르다가 죽은 뒤에는 무사 여신들 곁에 가서 이승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녀들 중 누구를 공경하는지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위에서 플라톤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매미들이 한여름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 하나는 그 노래 소리에 취해 나무 밑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노래의 유혹을 견디어 내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플라톤은 전자의 사람들을 노예로 규정한다. 실제로 노예 신분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의미에서의 노예다. 오직 먹고살기 위해서만 활동하는 자, 생존의 필요성에 얽매어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노예인 것이다. 여기에서 플라톤은 그들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는다. 그가 그들을 낮게 보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부덕은 ‘생각의 게으름’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의가 무엇인지, 법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참된 인식과 그렇지 않은 인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왜 그

럴까? 본래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러나 그들의 천성이 본래 그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즉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다른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본성이나 천성은 현재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픽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생존의 활동에 매어 있는 사람들은 왜 사유하지 않는가? 플라톤의 실질적인 답변은 앞에서 인용한 문단의 첫 문장에 있다. “일단 그럴 여유 시간은 있는 듯하군.” 파이드로스가 대화를 계속할 의사를 보이자 플라톤이 한 첫말이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철학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생존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정확히 이 여가 시간이다. 반면에 파이드로스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여가의 유무가 정확히 노예와 자유인(혹은 철학자)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물론 사유하는 자인 철학자의 덕목에는 매미들의 유혹을 견디는 단단한 의지가 덧붙여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사유를 멈추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잠시 노래의 흥에 취한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생산자들 혹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들을 향유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유 시간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국

가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서 말이다.

반면에 생산자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플라톤은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어떤 여유 시간도 가지고 있지 못한가? 앞의 인용문을 보면, 매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노예와 같다고 간주된 생산자들은 낮잠을 잔다. 따라서 이들도 실제로는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대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대화에 대한 의지, 노래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는 ‘휴식’과 ‘여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생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에게는 여유 시간이 없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지 휴식 시간일 뿐이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일정 시간을 일하면 소진된 노동력을 보충해야만 그 다음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낮에 일을 멈추고 매미들의 노래를 들으며 낮잠을 자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고, 다른 것, 특히 사유 활동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 낮잠은 생존에 필요한 활동의 일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노동자가 저녁이나 주말에 하는 소위 ‘여가 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여가 혹은 여유 시간으로 보기 힘들다. 많은 경우 그것은 일종의 ‘휴식’과 같은 것이다. 일하는 동안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활동들은 노동을 계속하기 위해 소진된 활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 한에서 ‘휴식’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들은 집에서 뒹굴며 TV를 보면서 주말을 보내는 휴식과 크

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생산자들에게는 여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그들의 삶은 동물적이고 노예적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생산자들의 운명을 정해 놓았다. 우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3. 여가와 기본소득

물론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휴식을 가져야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노동자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밤에 야학에 나가 공부하거나 책을 읽고 토론했던 사람들, 쉬어야 하는 주말에 모여서 글을 써서 팸플릿이나 신문을 출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한 철학자의 표현대로 자기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생존 활동을 위한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사회가 발전해 왔다면 이러한 생명을 건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운명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도 결코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동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기를, 인간 존재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생존만을 고려하도록 만든다면 그만큼 우리는 여가를 갖기 힘들 것이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보여 주고 있듯이, 생산력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우리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를 보여 주고 있다. 예전보다 더 우리는 살아남는 일을 많이 걱정한다. 일을 찾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버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가는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보다 인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정치는 사라져 가고 있다.

기본소득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소득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 의미에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존의 문제에 얽매 있는 한 우리는 예측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시간,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필연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즉 여가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맑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랬던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삶, 즉 사냥, 낚시, 목축, 비평 등의 여러 활동은 여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의 이념과 궤를 같이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에게서 ‘휴식’이 아닌 ‘여가’가 필요하다. 시대